

1970년 초반의 어느 '아름다운 일요일'

황석영의 <돼지꿈>과 다니엘 분의 <Beautiful Sunday>

김연수 | 소설가

“손가락 세 개 잘린 근호에게는 ‘나훈아 쏘’를 함께 보러갈 연인도, 아름다운 일요일도 없다. <Beautiful Sunday>를 부르는 근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하다. 그 경쾌하고 맑은 노래가, 그래서 최근까지도 자동차 CF에 사용됐던 그 노래가 이처럼 잔인하게 들리는 까닭은 그들이 꿈 돼지꿈은 결국 개꿈에 불과했고 아름다운 일요일이란 끔찍하기 짝이 없는 하루라는 사실이 곧 밝혀지기 때문이다.”

‘베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하천변에 반 미터쯤의 낮은 독이 있고, 독가에 쓰레기더미와 분간할 수 없이 늘어선 팔십 번지 동네’에 사는 강씨네에 경사가 겹쳤다. 정말 돼지꿈이라도 꿈 것일까? 고물상인 강씨는 쥐약 먹어 죽는 것도 아니고 지랄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닌,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송아지 만한 개를 돈까지 받아가며 얻어 왔기에 기분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다. 그렇잖아도 가출한 똥개라도 한마리 때려잡아 보신하려던 참이었는데 말이다.

강씨 일가가 꿈 돼지꿈

강씨의 아들 근호는 또 어쩐가? 조금 다치기는 했으나 위로금 삼만원에다, 공장병원의 치료비 무료, 한달 동안의 노임도 공짜로 나온다니 술을 안 마실 수가 있겠는가? 어쩐지 돈 들어갈 일이 태산 같았지만 강씨택은 근심도 앓더니 이런 일이 생기려고 그랬나보다. 가출했던 강씨의 딸 미순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데다가 재건대 대장으로 독수리표 전축에다 흘러간 노래판이 서른장, 자기 손으로 지은 벽돌집도 있는 왕씨에게 시집가게 됐으니 경사가 겹쳐도 이렇게 겹칠 수가 있는가? 술에 취한 근호, 그래서 한 구절밖에 모르는 외국 노래를 부른다. “악, 악, 악, 뷰티풀 썬데이”라고. 그런데 왜 원곡대로 ‘헤이, 헤이, 헤이’도 아니고 ‘하, 하, 하’도 아니고 ‘하필이면

‘악, 악, 악’이나? 이 좋은 날에 말이다.

1974년 출간된 황석영의 소설집 <객지>(창작과비평사)에 실린 작품 <돼지꿈>은 반나절 동안 언제 뜯길지 모르는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강씨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단편소설이다. 이 반나절 동안 위에서 말한 대로 강씨집 식구들에게는 저마다 한가지씩 좋은 일들이 생긴다. 하지만 차근차근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행운이라는 것은 악운의 다른 말이다. 근호의 행운이란 전기톱으로 합판이나 베니어나 합성 수지를 똑같은 규격으로 자르는 일을 하는 그의 손가락 세 개가 잘려서 생긴 것이다. 한 개에 만원씩, 합이 삼만원은 그렇게 생겨 동생 미순이 시집 보내는 밑천이 된다.

일수를 이만원이나 빌려 도망쳤던 미순이는 가져간 돈은 다 까먹은 데다가 임신 6개월의 몸으로 돌아왔으니 몸 풀 때까지는 전에 나가던 가발 공장에도 못 나가고 돈을 까먹을 판국이다. 미순이 낙태수술을 거부하니 시집 보내자면 오만원도 족히 필요한 데다가 배가 부른 미순이를 데려갈 사람도 있을 리 만무하다. 강씨택으로서, 재건대 대장, 쉽게 말해서 양아치 왕초에게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다. 이제 작품의 시선은 송아지 만한 개를 잡아 술추렴을 벌이는 개천 건너 빈터 쪽으로 맞춰진다.

근호는 여전히 “악, 악, 악, 뷰티풀 썬데이”를

부르다가 맨땅에 큰땃자로 떨어져 잠이 든다. 그때 왕씨가 강씨 앞으로 가서 넘죽 절을 하며 “사위 인사 받으슈”라며 호기 있게 말했다. 강씨가 어리둥절하자, 왕씨는 미순과 결혼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장인이라며 술을 올린다. 옆에 섰던 동네 사람들, 한마디씩 거든다. “허, 날마다 술먹게 생겼네 그랴.” “좌우지간에, 오늘 우리 동네 경사 만났구먼.” “개고기 먹고, 술 먹고, 푸짐하게 놀았구.” 근호는 꿈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듯하다. “악, 악, 악, 뷰티풀 썬데이”라고.

더 없이 잔인한 노래

<Beautiful Sunday>는 영국 출신의 가수 다니엘 분이 1972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인기차트 상위권에 오르면서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해 급기야는 대한민국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며 공장에 다니는 젊은이의 입에서까지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일요일’에도 특근했을 근호는 이 노래의 가사가 다음과 같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새들은 노래하고 그대는 내 곁에 있어. 이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 갑시다. 헤이, 헤이, 헤이, 아름다운 일요일. 태양을 쫓아 계속 달릴 터이니, 이 일요일이 결코 끝나지 않도록. 헤이, 헤이, 헤이, 아름다운 일요일.”

하지만 손가락 세 개 잘린 근호에게는 ‘나훈아 쏘’를 함께 보러갈 연인도, 아름다운 일요일도 없다. <Beautiful Sunday>를 부르는 근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하다. 그 경쾌하고 맑은 노래가, 그래서 최근까지도 자동차 CF에 사용됐던 그 노래가 이처럼 잔인하게 들리는 까닭은 그들이 꿈 돼지꿈은 결국 개꿈에 불과했고 아름다운 일요일이란 끔찍하기 짝이 없는 하루라는 사실이 곧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왜 술에 취한 근호가 원곡대로 ‘헤이, 헤이, 헤이’라거나 ‘하, 하, 하’라고 부르지 않고 “악, 악, 악”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법도 하다.●